

2000년 서울역사 한눈에... 백제 대서사 문화·예술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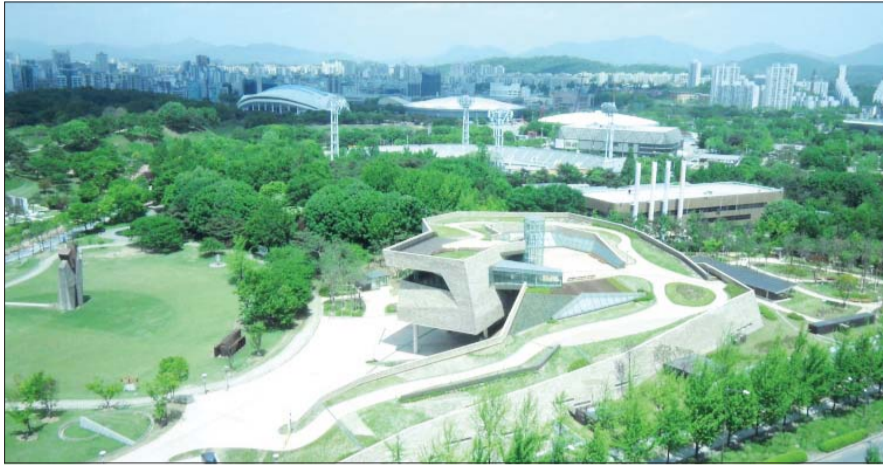
한성백제박물관 내년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
근초고왕 역사 뮤지컬 재정비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

서울의 고대역사·문화를 조명하는 한성백제박물관이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성백제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2022년 9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8일에 걸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물관은 체험·국악 등의 문화행사를 열어 개관 10주년과 서울 정도 및 백제건국 2040주년을 기념하고 고도 2000년 서울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한성백제박물관 전경.

/한성백제박물관

높인다는 목표다.

행사는 ▲백제 전통문양 체험 ▲백제 무사의 무예시연과 의장대 퍼레이드 ▲뮤지컬 근초고왕 ▲한성백제의 숨결 공연 ▲서울시교향악단 특별공연으로 구성됐다. 박물관은 본 행사에 약 57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박물관은 내년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해 재단에서 양성한 예술교육자들이 백제 전통문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시민들이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기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

한 것을 자축하며 광장 무대에서 무술대련 시범을 선보이는 '백제 무사의 무예시연'과 '의장대 행렬', 백제 한성도읍기 최전성기를 구가한 근초고왕의 평양성전투 직후 개선 장면을 연출한 '뮤지컬 근초고왕'도 만나볼 수 있다.

이듬해 9월 30일 박물관 대강당에서는 '한성백제의 숨결' 공연이 펼쳐진다. 박물관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손잡고 백제 역사의 대서사와 백제금동대향로의 5악사를 테마로 한 연주회를 가진다.

박물관 개관 10주년과 백제건국 204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시향의 특별 연주 무대도 마련된다. 2022년 10월 14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바흐의 작품 푸가 사단조 BWV 578 '작은 푸가'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박물관 측은 송파구 백제문화축제와 연계해 '개관 10주년 기념 월간 문화행

사'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지난 2013~2016년 진행한 백제 근초고왕 역사 뮤지컬을 재정비해 공연하고 국립국악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업해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박물관은 덧붙였다.

박물관은 내년 1월까지 10주년 기념행사 시행 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2~3월 행사대행용역 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성백제박물관 측은 "한성도읍기 역사와 문화를 담은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백제 최강성기인 한성도읍기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해 서울의 백제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확대

벽면 간단 설치... 연내 7000기 보급
설치·운영사에 1기당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연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처럼 별도의 충전 시설을 구축할 필요 없이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휴대폰처럼 전기차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업무시설 주차장 벽면에 간단히 설치가 가능해 주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또 전기차 이용자는 생활반경 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설치비용과 충전요금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사례.

/서울시

치되는 장소는 ▲중구 약수하이츠아파트 포함 아파트 260개소(1만1758기) ▲성북구 웰스빌 빌라 등 연립·다세대주택 7개소(15기) ▲종로구 소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포함 업무시설 27개소(324기)다. 3kW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울시가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사에 1기당 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내달 29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시민 710만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 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 등 정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쓸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시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동주민센터에서 통

지한다.

시는 접촉 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쓸 수 있다.

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3년간 511억 매출

347억 해외수출, 377억 투자유치

서울시는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이 최근 3년간 약 5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3년간 72개 혁신기술을 선정해 지하철, 도로 등 107곳에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총 284억원을 지원했다.

테스트베드에 함께한 기업은 지난 3년간 163억8000만원의 공공구매, 346억8000만원의 해외수출, 376억7000만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시는 설

명했다.

시는 올해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해 95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스타트업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적용한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1년간 서울시 공공분야에서 '현장 테스트' 기회를 주고, 사업비로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참가 희망 기업은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서울시는 총상금 1950만원 규모의 '2021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빅데이터캠퍼스'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수집한 민간·공공데이터를 민·관·산·학이 자유롭게 공유·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라인 공간이다.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과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행사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올해 공모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6 | 해질 / 18:54

9월 6일 (월)
음력: 7월 30일

수도권 날씨
19~2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15/25
- 동두천 17/25
- 백령도 20/23
- 파주 16/25
- 가평 16/24
- 서울 19/25
- 양평 17/25
- 인천 20/26
- 수원 20/25
- 용인 20/25
- 평택 18/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유엔 안보리, 코로나19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 논의... 미국은 부정적 / 사진 뉴스
▲ 美 합참의장 "아프간 분열... 알카에다 재건 불러올 수도"

▲ 日 언론, "아베, 자민당 총재 선거서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원"
▲ 英, 북아일랜드 무역협정 타협 안 되면 EU와 관계 장기 냉각 경고



▲ 플로리다 마이애미비치 시 당국, 해변 파티 열풍 강력단속 / 사진 뉴스
▲ 바이든 대통령, 9·11 20주년 맞아 테러장소 3곳 방문